2주 마음의 풍요를 찾아서

(1) 어부사, 굴원

※ 어부사 후반부 강독입니다.
전반부는 1강을 참고하세요.

● 放(방) : 원래는 놓다는 의미다.

맹자(孟子) - " 求其放心而已矣 " :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다.
(맹자) (구기방심이이의)

: 인간에게는 양지, 양능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공부라는 것은 그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자꾸 놓아버린다. 공부는 그래서 현실에서 놓아버린 것을 다시 잡는 것이다.

漁父辭-屈原
(어부사) (굴원)

屈原既放 : 굴원이 이미 추방을 당해
(굴원기방)

游於江潭 行吟澤畔 : 특정한 목적없이 못[1]에 앉아 시를 읊조리고 있었다
(유어강담) (행음택반)

顔色憔悴 形容枯槁 : 안색은 초췌하고 모습은 마르고 말라 생기를 잃었다
(안색초췌) (형용고고)

[2]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與 : 어부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당신은 [3]삼려대부의 지위에 있던 자인데
(어부견이문지왈) (자비삼려대부여)

---

1) 못은 물이 고여있다는 의미보다는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는 곳이라는 뜻이다.
2) 見 이란 표현은 여기에서 피동의 표현으로, 그렇게 봉
3) 초나라를 관장하던 세 가문 중 가장 세력이 컸던 가문이 굴씨가였다. 이 세 가문을 삼려대부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세력이라고 하기엔 실제적으론 지방의 실세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정치의 중심에서도 중심권이었다고 볼 수 있다.

何故至於斯 : 어쩌다 여기까지(이 지경까지) 오셨나이까
하 고 지 어 사

屈原曰, 擧世皆濁 我獨淸 : 굴원이 답하길, 세상이 탁한 와중에 나 혼자 맑더라
굴 원 왈 거 세 개 탁 아 독 청

4)衆人皆醉 我獨醒 : 사람들은 모두 취해있고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혼자 깨어있었다.
중 인 개 취 아 독 성

5)是以見放 : 그래서 방으로 추방당했다.
시 이 견 방

6)漁父曰 聖人不凝滯於物 : 어부가 말하길, 성인은 상황에 걸리지 않고 흘러가7)
어 부 왈 성 인 부 응 체 어 물

8)而能 與世推移 :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능 여 세 추 이

世人皆濁 : 사람들은 모두 탁하다
세 인 개 탁

9)何不淈其泥而揚其波 : 어찌 흙탕물을 휘저어 분리되지 않게끔 물결을 일으키며
하 부 굴 기 니 이 양 기 파

衆人皆醉 : 사람들이 모두 취해있으면
중 인 개 취

---

4) 獨醒: 새벽별이 뜰 때까지 깨어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취한 상황에서 홀로 깨어있는 상황을 부각시킨다. 여기서 홀로 깨어있는 상황은 합종을 주장하는 사이에서 홀로 연횡을 주장했던 것을 dmall한다.
독 성
5) 放: 피동의 의미로 밀려남을 의미한다.
방
6) 이 문장에서 노장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聖人은 본래 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口와耳가 들어가지만 이때의 의미에서는 이상화된 사람을 의미한다.
성 인 구 이
物: 물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지위나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물건이며 사람이기도 하나 사건,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리킨다.
물
凝滯: 응이라는 글자에는 얼음 빙자가 부수로 들어간다. 머무름, 걸려 지체됨을 의미한다.
응 체
: 자연스럽게 수린되로 가지 않고 걸림을 의미하는 이 문장은 노장의 성격이 드러나는 문장이다. 어부가 이 말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이 시를 굴원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부는 은둔자 혹은 옛날 사람들의 이미지를 형상할 가능성이 높다.
7) 신선, 불사의 빌미가 노자에는 있다. 노자에는 현실 비판적이며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세적인 구절이 있어 모호한 성격도 있다. 처세술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으로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8) 推移는 응체와 대비되는 말이다. 응체가 응결되고 멈춰있는 것이라면 추이는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굴원이 깨어 있는, 각성된 상태의 가치관을 굳건하게 가지며 각성, 청의 개념을 보았지만 어부는 그것이 응체라고 지적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추 이
9) 何不: 어찌 -하지 않습니까, 권유형의 말이다. 음가로 하여 盍이라고 한다. 문장의 앞에 오면 何不의 준말이다. 다른 예로는 之於의 음가를 줄여 諸로 쓰는데, 지어의 줄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니라 저라고 읽는다.
하 불 합 하 불 지 어 제

10)何不飽其糟而歠其醨 : 어찌 술지게미를 먹고 박주를 마시지 않으시오
하 부 포 기 조 이 철 기 리

11)何故 深思高擧 自令放爲 : 무슨 까닭으로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고고하게 하여,
하 고 심 사 고 거 자 령 방 위

12)屈原曰 吾聞之 : 굴원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굴 원 왈 오 문 지

13)新沐者 必彈冠 :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관을 털어서 쓰고,
신 목 자 필 탄 관

新浴者 必振衣 :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가다듬는다.
신 욕 자 필 진 의

14)安能以身之察察 : 어찌 맑고 깨끗한 몸으로
안 능 이 신 지 찰 찰

15)受物之汶汶者乎 :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수 물 지 문 문 자 호

16)寧赴湘流 葬於江魚之腹中 : 차라리 상수에 몸을 던져 물고기 뱃속에 장사를 지낼지언정
녕 부 상 류 장 어 강 어 지 복 중

安能以皓皓之白 而蒙世俗之塵埃乎 : 어찌 결백한 몸으로서 세속의 티끌과 먼
안 능 이 호 호 지 백 이 몽 세 속 지 진 애 호

---

10) 진흙을 치고, 물을 흐트려서 청탁이 구분되지 않게 하는데 왜 너만 구분되고 분리되려고 하느냐. 모두가 취했는데, 라는 뜻이다.

11) 故는 연고, 까닭, 이유, 사고, 사건, 일, 본래, 옛 고자의 의미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무슨 까닭으로의 의미로 쓰였다. 다른 예로는 故舊, 옛날부터 가져온 인간관계, 옛날 친구를 의미한다.
고 고구
深思: 깊은 생각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深을 동사로 思를 목적어로 본다면 깊은 생각이 되고, 뒤에 있는 高擧와 함께
심사 심 사
爲는 피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見放이라고 쓰면, 견이 당한다는 뜻이 있다.
고거 견 방
위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爲 A 所 B가 있는데 가끔 所가 생략되거나 爲가 생략되어 이기도 한다.

12) 吾聞之: 여시아문과 같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이다. 이 뒤에 무엇을 들었는지 나열된다. 여기에서는 세간에서 이런 말이 있어왔다는 의미다.
오 문 지 위 소 위 소
13) 彈: 튕기다, 튀기다, 털다, 꺼리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4) 文理가 났다는 표현이 있다. 한자에 모든 자는 동사가 될 수 있는 말이다. 즉 문장에 따라서 어떤 쓰임새로 쓰이냐가 다르다. 이를 알아보는 것이 문리가 트이는 것이다. 많이 보이면 트인다고 한다.
문 리
安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올 때 何(어찌 하)의 뜻으로 쓰인다.
안 하
以는 -을 가지고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15) 察察 깔끔한 모양새↔汶汶 더러운 모양새
찰 찰 문 문
乎가 문장의 마지막으로 올 때는 1. 의문사의 뜻 2. 자기 느낌, 생각을 표현하거나 감탄하는 의미 3. -에, ~에서로 於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호 어

16) 寧은 고문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차라리를 의미한다.
녕

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소

17)漁父 莞爾而笑 : 어부는 빙그레 웃으며
어 부 완 이 이 소

18)鼓枻而去 乃歌曰 : 노를 두드리고 떠나가면서 노래하기를
고 설 이 거 내 가 왈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 끈을 씻고
창 랑 지 수 청 혜 가 이 탁 오 영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
창 랑 지 수 탁 혜 가 이 탁 오 족

19)遂去不復與言 : 마침내 떠나가고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못했다.
수 거 부 부 여 언

● **해석**

굴원은 후에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멱라에 돌덩이를 품에 안고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부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부로 나타나는 인물은 그의 죽음을 조소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어부사는 굴원이 스스로를 비꼬았다고도 볼 수 있고, 후대의 해석으로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다.

---

17) 莞爾而笑 빙그레 웃다, 관용어처럼 사용된다.
18) 去는 거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피동으로 쓰인다면 떠나가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
예)去~ 之: ~에서 떠나감
19) 滄浪은 두 개의 물길이 만나는 곳이다. 즉 탁한 물과 맑은 물이 한데 섞여 어느 순간 맑기도 탁하기도 한 곳을 의미한다.

⑵ 난정기(蘭亭記) - 왕희지(王羲之)
난 정 기 왕 희 지

●왕희지

글씨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인물이다. 옛날에는 글이란 쓰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이라 글씨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지 글씬이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종이 발명 후 획의 변화가 글씨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각광받던 인물이 '왕희지'다. 당태종은 왕희지의 글씨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글씨를 모으려고 했고, 난정서의 경우 모방해서 쓰게 한 후 진본은 당태종의 무덤에 같이 매장되었다고 한다.

●배경

봄은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좋은 기운을 얻는 제사를 여는 계절이다. 이때 그런 제사와 유사한 모임을 열어 뒷풀이 때 글을 모아 문집을 만드는데 난정기는 그 모임에 대한 기록이다.

蘭亭記 _ 王羲之
난 정 기 왕 희 지

20)永和九年歲在癸丑暮春21)之初 : 영화 9년, 늦은 봄에
영 화 구 년 세 재 계 축 모 춘 지 초

會于會稽22)山陰之蘭亭 : 회계산 북쪽 난정에 모여서
회 우 회 계 산 음 지 난 정

修禊事也23) : 계제사와 관계된 것을 수행했다.
수 계 사 야

24)群賢畢至 少長咸集 : 여러 현인들이 모두 오고,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
군 현 필 지 소 장 함 집

---

20) 연호
21) 暮春: 늦은 봄을 의미한다. 이른 봄일 때는 孟春이라고 한다.
모 춘 맹 춘
22) 산에서의 음지는 산의 북쪽을 의미한다. 양과 음은 일조량이 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린다. 물의 강의 경우는 북쪽이 양을 의미한다.
23) 禊는 옛날 제사의 형식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까지 계승되지는 않았으나 함께 모여 한번 해보자, 모여보자는 목적을 나타낸다. 때문에 修와 관련된 것은 수행인데, 제사는 대게 목욕재계, 수행과 관계되기 때문에 修가 나온다.
계 수 수

들이 모두 모였다.

25)此地有崇山峻嶺 茂林修竹 : 이 땅에는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와 무성한 숲과 긴 소나무들이 있다.
차 지 유 숭 산 준 령 무 림 수 죽

又有淸流激湍 26)映帶左右 : 맑은 물줄기와 여울을 격한 물줄기가 빛나는 띠처럼 좌우에 펼쳐져 있다.
우 유 청 류 격 단 영 대 좌 우

27)引以爲流觴曲水 : 그 물줄기를 끌어다가 흐르는 물과 굽이치는 물을 만들었다28)
인 이 위 류 상 곡 수

列坐其次 29)雖無絲竹管絃之30)盛 : 실이나 대나무나 관이나 줄(로 만든 악기들의) 성대함이 없었지만 순서대로 열을 지어서 앉아31),
열 좌 기 차 수 무 사 죽 관 현 지 성

一32)觴一詠 亦足以暢33)敍34)幽情 : 한 잔 마시고 한 수 시를 지으며 평소엔 하지 못했던 깊은 속 마음을 펼쳐낸다.35)
일 상 일 영 역 족 이 창 서 유 정

---

24) 群, 畢: 모두를 의미한다.
군 필

少長, 나이적인 표현
소 장

25) 修는 竹을 꾸미는 형용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는 길다는 의미다.
수

26) 직역하면 빛나는 띠처럼 좌우로 펼쳐져 있다는 것인데, 물이 햇빛에 닿으면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상상해볼 수도 있다.
조

27) 以를 보며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며 이때의 목적어는 청류곡단을 의미한다.
이

28) 직역하면 곡수에 흐르는 잔이 되는데, 포석청과 같이 술잔을 띄워 흘러내리면서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29) 비록이라는 뜻으로, 비록 ~하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雖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봐야한다.

30) 한문적인 표현으로 성대한, 잘 차려진을 의미하는 것이 뒤로 간 경우다. 여기선 악기들을 뜻한다.
구

31) 운율과 성조가 있는 한시는 즉흥시를 짓기 위해 수많은 문장을 알고 있어야 했다. 즉 열로 앉아 술을 기다린다는 것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 동안 시를 짓고 있는 풍경을 상상해볼 수 있다.

32) 觴 원래는 뿔로 만든 잔을 의미했지만 여기서는 잔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상

33) 暢말려 있는 것을 차례차례 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창

34) 幽는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만큼 깊은 것을 그윽하다고 표현할 때 쓴다. 玄은 검은색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지만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그렇다면 幽情이라는 것은 속에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속마음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유 현 유 정

35) 즉 술과 시를 읊는다는 것이 단순히 유희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그윽한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6)是日也 天朗氣淸 惠風和暢 : 오늘 이 날은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포근하며 화창한 것이 은혜로웠다.
시 일 야 천 랑 기 청 혜 풍 화 창

37)仰觀宇宙之大 俯察38)品類之盛也 : 위로는 커다란 우주를 올려다 볼 수 있고, 아래로는 각각의 것들이 한창이다.
양 관 우 주 지 대 부 찰 품 류 지 성 야

39)所以遊目騁懷40) 足以極視聽之娛 : 눈을 돌리게끔 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니 보고 듣는 것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에 족하다.
소 이 유 목 빙 회 족 이 극 시 청 지 오

41)信可樂也 : 참으로 즐길 만하다.
신 가 락 야

42)夫人之相與仰俯一世 : 사람이 서로 함께 일세를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다보면서
부 인 지 상 여 앙 부 일 세

或取諸43)懷抱44) : 그것을 회포해서 취한다.
혹 취 저 회 포

---

36) 본래 천기가 낭청했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을 붙여쓰지 않고 하나하나 번갈아가며 쓴다. 이것을 互文(호문)이라고 한다.

37) 仰(앙)/俯(부)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 仰(앙)는 올려다보는 것을 의미하고 俯(부)는 내려다 보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는 무엇이 있고, 아래로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살펴보는 것이다.

觀(관)은 見(견)이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觀(관)에는 隹(추)자가 들어가는데 隹(추)는 새 중에서도 작은 새를 의미한다. 즉 木(목)위에 隹(추)가 있다는 것은 모여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集(집)이 된다. 그런 새들이 모여본다는 것은 매우 자세히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觀察(관찰)은 아주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포함한다.

38) 品(품)은 온갖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所(소): -한 바이다 以(이): -그렇게 해서

40) 懷(회)는 마음 忄(심)자에 눈에서 흐른 눈물이 옷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인 褱(회)를 붙여 마음 속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속 깊은 감정, 생각을 뜻한다.

41) 信(신) 부사로 쓰이면 참으로를 뜻한다.

可(가)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된다, 괜찮다, 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할만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樂(락)은 즐거움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쓰인다. 즐거움이 내적으로 표현될 때는 悅(열)자를 써서 마음 속이 기쁨을 표현한다.

42) 夫(부) 는 문장을 이끄는 말로 큰 의미 없이 쓰이거나 저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悟[45]言一室之內 : 방안에서 서로 마주 대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 언 일 실 지 내

或因寄所託 放浪[46]形骸之外 : 자기가 의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형체를 떠나 어울리게 되었다.
혹 인 기 소 탁 방 랑 형 해 지 외

43) 諸는 之於가 소리값으로 줄여진 말이다.
저 지어
44) 懷抱: 속에 있는 감정, 생각 예)회포를 푼다.
회 포
45) 원래 깨닫다는 뜻이지만 晤의 의미로 짝, 대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46) 形骸는 육체적인 껍데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해화라는 말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형 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나 의미가 훼손되어 껍데기만 남았을 때 사용한다.

形骸之外 는 장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형벌을 받아 장애자가 된 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
형 해 지 외
시하고 박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그는 덕이 뛰어난 자여 사람들이 덕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를 꾸짖으며 形骸之外 라고 하였다. 형체를 떠나 사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형 해 지 외